

성호기념관 소장 『청풍계첩(靑楓禊帖)』 일고(一考)

박종훈*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청풍계첩』의 성첩 과정과 일람
 - 2.1. 『청풍계첩』의 성첩 과정
 - 2.2. 『청풍계첩』일람
3. 『청풍계첩』의 작품 세계
 - 3.1. 유상처에서의 흥취 발산
 - 3.2. 개인적인 자부심의 발현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그간 청풍계나 청풍계와 관련된 연구는 간간히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청풍계의 모임을 그림과 시로 기록한 시화첩인 『청풍계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1620년 청풍계의 모임을 시와 그림으로 엮은 『청풍계첩』의 성첩과정과 작품을 살펴보았다.

1620년 김상용이 청풍계를 떠나 원주에 거주하고 있을 때, 김신국, 이상 의, 민형남, 이덕형, 최희남, 이경전, 이필영 7인은 상춘의 목적으로 청풍계를 찾았다. 그리고 다음해인 1621년 입춘에 민형남, 이필영이 빠진 상태에서 재차 모임을 개최했다. 이쯤 김신국이 1620년 그날의 상춘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로 옮겨 후대에 전해주자고 제안했으며, 이 제안에 따라 그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각자 시작품을 지었다. 실제 그림이 그려지고 시작(詩作)이 이루어진 것은 1년이 지난 1621년이었는데,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 속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모임에 참여했던 이상 의는 성호 이익의 할아버지인데, 이익은 1735년

* 청명문화재단 전임연구원

집안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청풍계 모임과 관련된 시화(詩畵)를 발견하고 이를 『청풍계첩』이라는 시화첩으로 엮었다. 이것이 성호기념관에 소장된 『청풍계첩』이다. 이 과정에서 이익은 청풍도 전경을 그린 그림을 임모(臨模)했다고 밝혔다.

이 『청풍계첩』에는 ‘靑楓賞春’이라는 이상의 친필과 청풍계의 전경을 그려놓은 그림, 김신국의 서문, 이어 7인의 시작품 17수가 수록되어 있다. 각 시인의 작품 말미에는 각 시인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부기되어 있다.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은 유상처에서의 흥취가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흥취는 탈속의 이미지로 연결되었고 신선 세계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자부심의 표출을 위해, 작품 내에서 모임에 함께 했던 이들의 재능을 칭송했다. 자신들의 모임을 왕희지의 난정 모임이나 소식의 서원 모임에 견준 것도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작품 경향은 조선조 문인들의 시회(詩會)나 아집(雅集)에서 흔하게 보이는 것이라,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만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핵심어 : 靑楓溪帖, 靑楓溪, 金尙容, 李翼, 金蓋國, 李尙毅

1. 들어가는 말

청풍계는 인왕산 기슭에 있는 개울이름이다. 지금 인왕산 아래에 있는 청운초등학교 뒤편으로 본래 안동 김씨인 김영(金瑛, 1475~1528)이 이곳에 터를 잡았다. 김영이 청풍계의 주인으로 있을 때부터 이곳은 한양의 유상(遊賞)의 공간이었다. 조선 중기 박순(朴淳),¹⁾ 이이(李珣),²⁾ 이호민(李好閔),³⁾ 정유일(鄭惟一),⁴⁾ 유희경(劉希慶)⁵⁾ 등 수많은 문인들이 청풍계를

1) 박淳, 〈靑楓溪〉, 『思菴集』권1.

2) 李珣, 〈淸風溪洞〉, 『栗谷全書』拾遺 권1.

배경으로 시작(詩作)을 했으며, 청풍계는 유상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김영의 후손인 김상용(金尙容, 1561~1637)에게까지 청풍계가 전해졌다. 김상용은 청풍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1608년 청풍계에 별업을 꾸몄다. 김상용의 『연보』에 의하면, 48세 되던 1608년 청풍계별업(淸風溪別業)을 짓고 주변에 와유암(臥遊菴), 청풍각(淸風閣), 태고정(太古亭)을 마련했으며, 수많은 지(池)·대(臺)·암(巖)·학(壑)에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는 월령시(月令詩)인 「산거축월유흥(山居逐月幽興)」 12수를 지었으며,⁶⁾ 이때부터 자신의 호를 풍계(楓溪) 혹은 계옹(溪翁)이라 했다고 한다.⁷⁾ 이로 인해 청풍계는 한양의 대표적인 유상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627년 김상용이 병자호란으로 인해 강화도에서 순절하게 되면서 청풍계는 잠시 주인을 잃게 되었다. 또한 청과의 전쟁으로 인해 아우인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심양으로 압송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상을 할 만한 겨를이 없었기에, 청풍계 역시 유상처로서의 의미가 중단되었다. 이후 김상용의 고손인 김시걸(金時傑, 1653~1701), 김시보(金時保, 1658~1734)가 청풍계의 주인이 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김창협(金昌協, 1651~1708), 김창흡(金昌翕, 1653~1722), 김창업(金昌業, 1658~1721) 형제와 어울리며 시회를 열어 유상처로서의 청풍계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고 이들의 시회는 백악시단(白岳詩壇)으로 연결되었다.⁸⁾

3) 李好閔, 〈靑楓洞次諸兒韻〉, 『五峯集』 권3.

4) 鄭惟一, 〈遊淸風溪次朴思菴淳韻〉, 『文峰集』 권1.

5) 劉希慶, 〈憶淸風溪〉, 『村隱集』 권1.

6) 金尙容, 〈山居逐月幽興〉, 『仙源遺稿』 상.

7) 金尙容, 〈仙源先生年譜〉(『仙源遺稿年譜』) “築淸風溪別業, 一名靑楓溪, 在京城西北彌雲山下, 水石淸絕. 菴號臥遊, 閣名淸風, 又有太古亭. 池臺巖壑, 悉皆命名, 有十二月令詩. 又取黃太史立朝意在東山, 佩玉心如槁木之語題壁, 而自是又號以楓溪, 亦號溪翁.”

8) 청풍계의 연원과 공간 인식에 대해서는 이종목, 「17세기의 문화 공간 靑楓溪」(『문헌과해석』 12, 태학사, 2000.);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다홀미디어, 2008.); 강혜선, 「인왕산 청풍계의 문학적 전통」(『한문학보』 25권, 우리한문학회, 2011.)을

청풍계(靑楓溪) 혹은 청풍계(淸風溪)와 관련된 선행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이종묵은 청풍계를 언급하면서 주변에 있는 태고정이나 삼당(三塘), 청풍지각(靑楓池閣), 와유암 등에 대해 그 위치나 관련 시문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한 바 있다.⁹⁾ 강혜선은 청풍계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논의한 바 있다. 16세기에는 도성의 유상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17세기에는 김상용의 이은(吏隱)의 이미지와 순절의 이미지가 중복되면서부터, 유상처와 충절을 되새김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으며,¹⁰⁾ 18세기 초에는 김창협, 김창흡 형제와 김시걸, 김시보 형제, 그리고 주변 문인들이 아집과 시회를 통해 조선후기 문단의 변화를 이끌어갔던 공간으로 변했다는 것이다.¹¹⁾ 김영이 청풍계에 터를 잡고 이후 후손인 김상용과 김시걸 형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선의 문인학자들이 이곳을 대상으로 수많은 시문을 남겨, 청풍계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상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1620년에 청풍계에서 펼쳐졌던 문인들의 모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호기념관에 소장된 『청풍계첩』이 바로 이 모임을 그린 그림과 참여했던 문인들의 시를 모아둔 시화첩이다.

『청풍계첩』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보고된 바 있다. 『청풍계첩』에 실린 그림을 통해, 회화사적 위상을 밝힌 연구 성과도 있고¹²⁾ 청풍계의 경관 요소와 공간 구성에 대해 분석한 논문도 있으며,¹³⁾ 청풍계의 역할과 『청풍계첩』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성과가 있었다.¹⁴⁾ 그러나 이들 연구는 『청풍계첩』의 존재 자체만을 소개한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앞에

참고했다.

9) 이종묵, 앞 논문, 참조.

10) 강혜선의 논문에 의하면, “1708년 김상용의 초상화를 모신 영당인 凜然祠가 세워졌고 凜然祠를 세우는데 깊이 관여한 宋時烈이 사당 앞의 큰 바위에 ‘大明日月百世淸風’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강혜선, 앞 논문, p.51 참조.

11) 강혜선, 앞 논문, 참조.

12) 윤진영, 「17세기 청풍계 그림, 〈청풍계도〉」, 『문헌과해석』12, 태학사, 2000.

13) 이진향, 이재근, 「淸風溪 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14)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 다솔미디어, 2008.

서 살펴본 청풍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도 동일한 한계를 갖고 있다.¹⁵⁾

청풍계와 관련된 시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시화첩으로 엮인 『청풍계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는 청풍계 및 『청풍계첩』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토대로, 1620년 청풍계의 모임을 서문이나 시작품을 통해 살펴보고 『청풍계첩』이 성첩된 과정도 고찰해 볼 것이다. 물론 『청풍계첩』에 실린 시작품을 꼼꼼히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20년의 기록으로, 김상용의 순절이나 김상헌의 절조에 대한 이미지가 추가되기 전이기에 유상처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풍계첩』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청풍계첩』에 실린 시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청풍계에 대한 당대 문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데도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청풍계첩』은 조선 중기 사회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에, 조선 중기 사회의 일단을 파악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청풍계첩』의 성첩 과정과 일람

2.1. 『청풍계첩』의 성첩 과정

『청풍계첩』에는 당시 청풍계의 모임에 참여했던 7인의 시작품과 사회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참여했던 7인 중에 이상익(李尙毅)이 있는데, 이는 이익(李翼)의 할아버지이다. 이와 관련해 『청풍계첩』의 성첩 과정에 대한 이익의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15) 반면, 2004년 안산시에서 발간한 『星湖紀念館』에서는 『청풍계첩』에 실린 총 17수 중, 7수를 소개한 바 있다.

을묘년(1735) 초봄에 선묘(先廟)에 일이 있어 그 일을 다 처리한 후, 집안에 전해져 오는 옛 물건을 찾다가 청풍계축(靑楓溪軸)을 얻게 되었다. 청풍계축은 우리 할아버지 이상공(貳相公) 이상의(李尙毅)와 석루공(石樓公) 이경전(李慶全) 등 여러 분이 계곡에 있는 太古亭에서 노닐 것을 시로 지어 순서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이를 그림으로 그려 후세에 전해준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16년이나 되는 오래된 일이라 낡고 떨어져 있었다. 이에 장정을 바꾸어 첩으로 만들면서 그림을 새롭게 따라 그려서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아, 시화첩을 만지며 그 시를 읊조리자니, 후손으로 어찌 아득한 감흥이 일지 않겠는가. 골짜기와 산은 그대로인데, 숲 속에 있는 정자들은 조금은 그 모습이 변했다. 그림을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저것은 지금도 있는데 예전 모습과 똑 같구려.”라 했다. 모임에 참여했던 여러 공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 여러 공들은 우리 선조와 같은 조정에서 벼슬했고 함께 노닐었지.”라 했다. 당시에 서로 따르면서 즐겁게 노닐었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두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여 명문세족이 되었다. 또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아무개는 아무 분의 증손과 현손이며, 아무개는 아무 분의 자손이다. 혹 만나기라도 하여 선조들의 옛일을 말하게 된다면 기뻐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라 말했다. 이것이 진실로 이 시화첩을 만든 의도이다.

다만 모임 사람 중에 상사(上舍) 최희남(崔喜男)만 후손이 없다. 우리 외조모 안씨(安氏) 부인의 외조모가 최희남의 누이였는데, 포의인데도 뛰어나 벼슬아치 사이에서도 명성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현달하지는 못했고 자손도 번창 하지 못했다고 한다.¹⁶⁾

이익은 1620년에서 116년이 지난 1735년에 이익의 집안에 전해져 오

16) 李瀼, 〈敬書靑楓溪帖後〉, 『星湖全集』권56. “歲乙卯孟春, 有事于先廟. 既利成, 搜家傳舊物, 得靑楓溪軸者, 卽我曾王考貳相公與石樓諸公, 遊于溪上太古亭, 賦詩列書, 作圖示後也. 距今一百一十有六年之久, 而不免有殘缺. 於是易糲爲帖, 傳模改畫以新之, 爲永遠之謀. 嗚呼, 摩挲諷誦, 其在後孫, 孰不有緬然興感. 溪山自在, 而物或變遷樹木亭榭之間, 按圖而指點之曰, 某也古而有今無也, 某也今而有古亦同也. 其於數公者, 像想景慕之曰, 彼數公者與我祖仕同朝遊同迹. 當時之徵逐權讌, 卽此可見, 而皆簪紱相傳, 爲世名族. 又屈指而歷數之曰, 某也是某公之曾玄, 某也是某公之雲仍. 或與之遇, 語及舊事, 而無不愜如也. 此實作帖之意也. 獨會中崔上舍喜男無傳焉, 不肖之外王母安夫人之外王母, 卽上舍之姊妹也. 布衣崛奇, 有名縉紳間, 竟身不顯, 子孫不振云.”

는 ‘청풍계축’을 발견하고 이를 후손에게 길이 전해줄 요량으로 손질하여 첩으로 만들었다. ‘청풍계축’이 오랜 세월 탓에 훼손된 부분이 있었기에, 그림을 임모(臨模)하며 새로 첩으로 엮었다고 했으니, 이 그림만은 본래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성호기념관에 소장된 『청풍계첩』은 바로 이익이 1735년에 엮은 『청풍계첩』이다.

1620년의 모임을 『청풍계첩』으로 엮으면서, 이익은 그들의 후손들과 다시 모임을 열고자 했다. 120년이 지난 1740년에 이익은 후손들과 청풍계에서 만나 노닐자고 약속하면서 선조들의 시회를 이어나가려 했으며, 실제 모임이 성사되어 즐겁게 노닐었다. 그러나 이익은 병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집안사람 이중환(李重煥)을 대신 참석하게 하면서 칠언 율시 2수를 지은 바 있다.¹⁷⁾ 1740년에 이익이 주최했던 시회에 대한 이익의 언급 외에 다른 자료가 없어, 그 모임의 실상을 추론할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120년 전의 모임을 후손들이 이어가려 했고 실제 모임이 성사되었다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다음은 1620년 청풍계 모임에 참여했던 김신국(金薰國)이 쓴 서문을 보도록 하겠다.

만력 경신년(1620) 늦봄에 여흥 이상의의(李尙毅)·여천 민형남(閔馨男)·한평(韓平) 이덕형(李德炯)·한남(韓南) 이필영(李必榮)·한산(韓山) 이경전(李慶全) 및 나 김신국이 대궐에서 물러나와 청풍계의 상서 김상용의 집에 모여 유상 하였다. 당시 김상용은 외지에서 벼슬살이 하고 있었기에, 청풍계의 정원이나 연못의 승경이 유상하는 사람들의 차지가 된 지 몇 해가 되었다. 자구(子懼) 최희남(崔喜男)도 또한 와서 이 모임에 참여했다.

마침내 서로 웃웃을 벗고 산골짜기를 걸어 올라가 그윽한 곳을 모두 돌아보고서 내려와 태고정에서 쉬었다. 자리가 성대하지도 않았고 풍악을

17) 李瀼, 〈往在萬曆庚申暮春, 曾王考貳相公與同朝諸公同遊於青楓溪賦詩作圖, 爲傳家物, 今歷一百二十有一年, 而甲子再周矣. 宗人約束當日, 同遊諸公之後孫, 復會於溪上, 盡歡而罷. 余病不能赴, 追次先祖韻志感.〉, 『星湖全集』권4.

멋들어지게 올린 것도 아니었지만, 술은 시원하면서도 향기로웠고 노래는 부드러우면서도 청아로웠다.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며 실컷 취한 채 돌아왔다.

그 뒤에[異日]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내게 “청풍계에서의 놀이는 너무 즐거웠네. 어찌 그날의 노늠을 그림으로 그려 노닌 흔적을 오래도록 남겨두고 각각 시를 지어 그날의 노늠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지 않는가?”라 말들 했다. 이에 내가 “봄날은 화창하여 경치는 맑았고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으며, 시냇물은 졸졸 흐르고 산새가 지저귀고 있었네. 저자와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데도 완전히 고요하여 세상 밖의 흥취가 있었으니, 어찌 그날의 노늠을 잊을 수 있겠는가?”라 대답하니, 모두들 “잊을 없는 일이네.”라 했다. 또 내가 “수레와 말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관리와 선비가 서로 부르느라, 구경하는 사람들이 길을 메웠었지. 술잔을 들고서 군왕의 도를 논의하고 손뼉 치면서 당세의 급선무를 얘기하느라, 눈썹을 휘날리고 기운을 토해내면서 청운의 뜻을 격양시켰으니,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 하니, 모두들 “잊을 수 없네.”라 했다. 내가 또 “훌륭한 임금과 신하가 다스리는 태평시절에 조야(朝野)가 편안하여, 조회를 마친 뒤에 봄 경치를 찾으니, 궁궐의 향 내음이 옷소매에 가득했지. 숲과 샘물에 얼굴빛이 변하였고 꽃과 새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 그곳에서 한 잔 술 마시며 시 한 편 읊조렸으니, 어찌 성스런 군주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 생애와 이 날은 모두 우리 임금께서 하사하신 것이니,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라 하니, 모두들 “잊어서는 안 되지.”라 했다. 마침내 궁궐 향해 두 손 모아 절을 하고 이 서문을 쓰노라.¹⁸⁾

18) 金蓋國 “萬曆庚申維暮之春，驪興李相國驪川閔相國韓平李尙書韓南李四宰韓山李參判蓋國，退自闕下，會于青楓溪金尙書第，賞焉。時尙書守制在外，園池之勝，屬於遊人者有年矣。崔上舍子懼甫，亦來預。遂相與脫去上服，登陟山阿，探討幽隱，返而息乎太古之亭。筵非盛設，樂不廣張，酒冽而香。歌裊而清，合席同懽，盡醉而歸。異日諸公謂余曰，青楓之遊，樂哉。盍謀繪事以壽其跡，而各題詩章，永矢不忘耶。余曰，唯春和景明，百花亂開，澗水潺湲，山鳥間關，闌闔咫尺之地，宛有蕭然塵外之趣，是不可忘耶。曰否。輪蹄簇至，騎從如雲，吏士傳呼，觀者塞途。停杯而論皇王之道，鼓掌而談當世之務，場眉吐氣，激昂青雲，是不可忘耶。曰否。際會明時，朝野寧謐，會罷尋春，天香滿

1620년 3월에 김신국과 이상의, 민형남, 이덕형, 이필영, 이경전, 최희남 등 7인이 청풍계에서 봄놀이를 했다. 이때 청풍계의 주인은 김상용이었는데, 당시 김상용이 외직에 있었다는 언급이 보인다. 김상용의 연보에 의하면 1618년 2월에 부친상을 당했고 4월에 양주 도혈리에 장사지냈다. 이해 10월에 궤연을 받들고 원주(原州)로 가서 우거했는데, 이로 인해 청풍계가 비어있게 된 것이다. 1620년 4월에 3년상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원주에 있었고 다음 해인 1621년에 한양으로 올라와 서강(西江)에 살았다.¹⁹⁾ 『청풍계첩』에 실린 리경전의 7언고시에서도 “청풍 옛 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은 없고 정자만 텅 비어 있네. 지금껏 한가롭게 노는 사람들이 차지하여, 떠들썩하게 노닐고 아이들도 시끄럽네.[青楓舊基誰是主, 主人不在堂宇空. 邇來遊賞屬閑人, 樂事藉藉喧兒童.]”라 했으니, 당시 청풍계가 비어있었음이 재차 확인된다.

그러나 『청풍계첩』에 실린 시작품과 그림이 현장에서 지어지고 그려진 것은 아니었다. 김신국의 서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異日], 그날 자리에 함께 했던 이들이 모여, 그날의 흥취를 시로 남기고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청풍계첩』에 실린 시화는 언제쯤 완성된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청풍계첩』에 실린 최희남의 시작품과 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靑韭黃柑送舊辰
展圖仍憶去年春
世間聚散元無定
却恨尊前小二人

푸른 부추 누른 감자에 작년 그날 보내니
그림 보고 지난 해 봄날이 생각나누나.
모이고 흩어지는 세상일 정해져 있잖으니
술동이 앞에 두 사람 없어 한스럽다네.

袖. 林泉動色, 花鳥欣迎, 一觴一詠, 無非聖主之恩. 此生此日, 皆是吾君之賜, 則是其可忘耶. 咸曰, 不可忘. 遂拜手以書.”

19) 金尙容, 〈仙源先生年譜〉(『仙源遺稿年譜』) “先生五十八歲, 二月, 丁議政公憂. 四月, 葬于楊州陶穴里. 十月, 奉几筵往寓原州. 【先生仲胤時爲洪川縣監, 奉大夫人往. 先生既不安京輦, 與諸弟奉几筵, 寄寓原州, 以近定省. 不毀之年, 備經危困, 率禮無愆.】……先生六十歲, 四月, 服闋, 仍留原州.……先生六十一歲, 還寓於京城之西江.”

『청풍계첩』에는 최희남의 칠언절구 4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네 번째 수이다. 우선 작품의 내용을 보면, 2구에서 그림을 보고 지난 해 봄날이 생각난다고 했으니, 이 작품은 1620년 실제 모임이 있었던 다음 해인 1621년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술동이 앞에 두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부기에서 “다음 해 입춘일에 청릉 김신국이 이 모임을 먼저 약속했는데, 이때에 여흥 민형남은 휴가 가 있었고 한남 이필영은 연경에 갔다. 그래서 작품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이다.[翌年立春日, 淸陵先設此會, 時驪興在告, 漢南赴京, 故末句及之.]”라 언급한 바 있다.

서문에서 김신국은 ‘異日’이라고 하면서 날짜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희남의 시작품을 통해, 1620년 3월에 청풍계에서는 상춘만을 즐겼을 뿐, 실제 시작은 하지 않았고 다음 해인 1621년 입춘에 민형남과 이필영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서문에 보이는 것처럼, 그날의 상춘 기억을 되짚으며 시와 그림으로 남기자는 김신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먼저 그림을 그리고 이어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자 시작(詩作)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⁰⁾ 이어 모임에 참여했던 이익의 할아버지 이상의가 두루마리로 보관했던 것을 1735년 이익이 그림만을 임모(臨模)하여 지금의 『청풍계첩』이 탄생한 것이다.²¹⁾

2.2. 『청풍계첩』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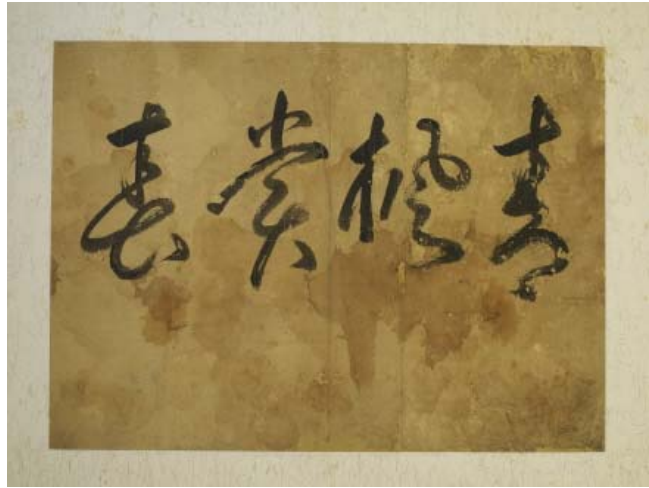
성호기념관에 소장된 『청풍계첩』은 총 21절이다. 외지, 내지, 그림, 서문, 시작품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20) 『청풍계첩』에 실린 실제 시작품에서도 그림에 대한 언급이 종종 있어, 그림이 먼저 그려졌고 이어 시작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1) 『청풍계첩』에 실린 시작품이나 그림이 실제 언제 완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전혀 보고된 바 없다.



〈도판 11〉 청풍계첩 표지



〈도판 12〉 청풍계첩 內紙

〈도판 1〉은 『청풍계첩』의 표지로, ‘靑楓禊帖’이라 쓰여 있다. 이익이 1735년 첩으로 엮으면서 자신이 직접 쓴 것으로 판단된다. 〈도판 2〉는 『청풍계첩』 내지(內紙)의 첫 장으로 ‘靑楓賞春’이라 쓰여 있다. 이 글씨는 이익의 할아버지 이상익의 친필로 보인다.



〈도판 13〉 『청풍계첩』의 청풍계 전경을 그린 그림

〈도판 3〉은 『청풍계첩』 안에 있는 청풍계의 전경을 그려 놓은 그림이다. 이익이 〈경서청풍계첩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그림은 진본이 아닌 모사본이다. 중앙 좌측의 정자가 바로 태고정이다. 그 주변에 총 7인을 그려놓았는데, 1620년의 청풍계 모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²²⁾

이어 김신국의 서문이 보이고 청풍계 모임에 참여했던 7인의 시작품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7인의 시작품 끝에는 각 인물에 대한 정보가 간략하게 부기되어 있는데, 이를 차례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淸陵君 金燾國(1572~1657)은 【자는 景進, 호는 後瘳】 壬申年에 태어났으며 【辛卯年(1591)에 司馬, 甲午年(1594)에 別試 합격했다.】 淸風 사람이다.

【淸陵君金燾國【景進後瘳】壬申生【辛卯司馬甲午別試】淸風人】

* 驪興府院君 李尙毅(1560~1624)는 【자는 而遠, 호는 五湖】 庚申生에 태어났으며 【乙酉年(1585)에 司馬에 장원급제했고 丙戌年(1598)에 別試에 합격했다.】 驪州 사람이다.

【驪興府院君李尙毅【而遠五湖】庚申生【乙酉司馬壯元丙戌別試】驪州人】

* 驪川府院君 閔馨男(1564~1659)은 【자는 潤夫, 호는 芝崖】 甲子年에 태어났으며 【庚子年(1600)에 別試에 합격했다.】 驪興 사람이다.

【驪川府院君閔馨男【潤夫芝崖】甲子生【庚子別試】驪興人】

* 禮曹參判 李德洞(1566~1645)은 【자는 遠伯, 호는 竹泉】 丙寅年에 태어났으며 【庚寅年(1590)에 司馬에, 丙申年(1596)에 庭試에 합격했다.】 韓山 사람이다.

【禮曹參判李德洞【遠伯竹泉】丙寅生【庚寅司馬丙申庭試】韓山人】

* 烏城 崔喜男(1562~1643)은 【자는 子懼, 호는 壺中】 壬戌年에 태어났

22) 이 그림에 대해 윤진영은 앞 논문에서 鄭澈(1676~1759)의 청풍계 그림과 대비시켜 俯瞰法으로 조망한 것이어서 그 전모가 잘 드러났고, 청풍계의 전경을 보여주 기 위해 주변 수목을 과감히 생략하고 넓게 설정한 공간 안에서 각 경물들을 표현 해 내고 있어 화자의 뛰어난 공간 구성력을 엿볼 수 있어 조선조 전반기 화풍의 전 통이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으며 【乙酉年(1585)에 司馬에 합격했다.】 和順 사람이다.

[烏城崔喜男【子懼壺中】壬戌生【乙酉司馬】和順人]

* 韓平君 李慶全(1567~1644)은 【자는 仲集, 호는 石樓로 乙酉年(1585)에 司馬에, 庚寅年(1590)에 別試에 합격했다.】 丁卯년에 태어났으며 한평(韓平) 사람이다.

[韓平君李慶全【仲集石樓乙酉司馬庚寅別試】丁卯生 韓平人]

* 漢南君 李必榮(1573~1645)은 【자는 而實, 호는 晚悔】 癸酉년에 태어났으며 丁酉年(1597)에 別試에 합격했다.

[漢南君李必榮【而實晚悔】癸酉生丁酉別試]

다음은 『청풍계첩』에 실린 시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우선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종묵은 그림과 함께 김신국의 서문에, 돌아가면서 쓴 시 두 편씩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총 14편의 시작품이 실린 것으로 파악했다.²³⁾ 또한 윤진영도 7인의 고관문사들이 모여 상춘의 감흥을 노래한 시문 14편과 그때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첩으로 꾸몄다고 했으며,²⁴⁾ 안산사에서 발간한 『성호기념관』에서도 시문 14편과 계회(契會)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첩으로 꾸몄다라 언급했다.²⁵⁾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는 『청풍계첩』에 김신국의 서문을 제외한 총 14수의 시작품이 수록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 『청풍계첩』에는 이보다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청풍계첩』에 실린 각 인물들의 시작품 수를 차례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김신국 : 7언율시 2수	이상의 : 7언율시 2수
민형남 : 7언율시 2수	이덕형 : 7언율시 2수
최희남 : 7언절구 4수	이경전 : 7언고시 1수(100구), 7언율시 2수
이필영 : 7언율시 2수	

23) 이종묵, 앞 논문, 참조.

24) 윤진영, 앞 논문, 참조.

25) 안산시, 『星湖紀念館』, 2004. p.121 참조.

『청풍계첩』에는 7언절구 4수, 7언율시 12수, 7언고시 1수, 총 17수의 시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이상의 시작품은 그의 문집인 『소릉집(少陵集)』권1에 〈제청풍계축후(題靑楓溪軸後)〉란 제명으로 실려 있다.²⁶⁾ 이외 다른 인물들의 시작품은 그들의 문집이 확인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²⁷⁾

다음으로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선 작품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김신국의 서문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김신국은 1620년 청풍계의 모임을 그림과 시로 남기자고 하면서, 상춘의 즐거움을 누렸는데, 이는 태평시절 임금의 은혜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보면, 강혜선의 언급처럼 청풍계는 한양의 遊賞의 공간이었고²⁸⁾ 『청풍계첩』에 실린 시작품 역시 유상처에서의 상춘의 흥취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시작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3. 『靑楓禊帖』의 작품 세계

3.1. 遊賞處에서의 흥취 발산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상용의 순절과 김상헌의 심양 압송 이후 청풍계에는 충절의 이미지가 덧씌워졌지만, 그 이전에는 도성 최고의 승경으로

26) 『청풍계첩』과 『少陵集』에 실린 이상의 작품에는 몇 글자의 출입이 보인다. 이상의 의 〈題靑楓溪軸後〉는 다음과 같다. “曾與溪翁醉石臺，彌雲秋色近噉盃。芰荷風晚香初散，楓樹霜酣錦作堆。地秘林泉留勝跡，天教我輩此重來。巋然太古亭空在，獨向東原首屢回。” “落花流水洞門幽，三月名園作勝遊。鏡裡不須悲白髮，人間還自有丹丘。笑看前嶺雲容變，醉愛深盃露氣浮。好事如今猶在耳，隔溪織唱度瓊樓。”

27) 이상의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개인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에서만 확인했다.

28) 강혜선, 앞 논문, 참조.

여러 문인학자들의 유상처였다. 『청풍계첩』 역시 1620년의 모임이기에, 청풍계에 대한 유상처로서의 인식이 각 작품에 산견된다.

曾與溪翁醉石臺
 彌雲秋色近銜杯
 芰荷風晚香初散
 楓樹霜酣錦作堆
 地秘林泉留勝迹
 天教我輩此重來
 巋然太古亭空在
 獨向東州首屢回

일찍이 계옹과 석대에서 술 취하니
 필운대의 가을빛이 술잔에 다가왔지.
 연꽃은 저녁 바람에 향기 막 흩어지고
 서리 맞은 단풍나무는 비단을 엮은 듯.
 대지는 임천에 노닌 자취 감춰두었으며
 하늘은 우리를 이곳으로 거듭 오게 했네.
 높다란 태고정만 허공에 우뚝 솟아있어
 다만 동주 향해 머리만 연신 돌렸다네.

이상의의 첫 번째 작품이다. 1구의 ‘계옹’은 당시 청풍계의 주인이었던 김상용을 가리킨다. 이상의와 김상용이 여러 번 청풍계에서 노닐었음을 의미한다. 3,4구는 이전 김상용과 청풍계에서 함께 했던 풍경을 그려낸 부분이다. 이어 5,6구에서는 자신들이 노닌 자취를 땅이 비밀스럽게 감춰 두었고 그래서 하늘이 자신을 다시 청풍계로 인도했다는 말이다. 마지막 구절은 자주 이곳을 돌아보며 그날의 흥취를 되새겼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谷口春晴楊柳新
 園中物色媚良辰
 懽呼紅拂伊相譚
 醉脫烏紗却任眞
 頂插花枝羞髮短
 心傳玉壘見情親
 他年投老江湖去
 縱有此懷無此人

골짜기의 맑은 봄에 버들 빛은 새롭고
 동산의 물색은 좋은 때 만나 아름답구나.
 고관들 즐겨 부르며 서로 농담을 하고
 술 취해 관모 벗겨진 채 맘껏 노닌다네.
 머리에 꽃가지 꽃으니 짧은 머리 부끄럽고
 마음으로 옥 술잔 전하니 깊은 정 드러나네.
 뒷날 늙어 강호로 떠나가게 된다면
 이 회포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없겠지.

김신국의 두 번째 작품이다. 봄이 찾아온 골짜기의 화사한 풍경으로 인해 고관들이 즐기느라 관모가 벗겨진 것도 모를 정도라고 하면서, 봄날

청풍계에서 눈 흥취를 맘껏 발산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뒷날 늙어 한양을 떠나가게 된다면, 지금 노니는 흥취는 가슴에 여전히 남겠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의 흥분을 고취시켰다.

이경전은 7언율시 첫 번째 작품에서 청풍계는 한양에서 최고의 승경이라고 하면서 늘 수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찾아들어 술 마시고 노면서 달빛 받고 돌아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⁹⁾ 청풍계가 당시 흥취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유상처였음이 재차 확인된다. 최희남도 자신의 첫 번째 작품에서 청풍계의 봄날 풍경을 그려내면서, 그곳에서 여러 공들과 노닌 흥취를 시 속에 담아냈다.³⁰⁾

흥취를 구가할 수 있는 유상의 공간은 곧바로 세속의 만사에서 벗어난 탈속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신선의 세계로까지 확장된다.

偶尋巒徑趁殘春
洞裏風光特地新
深紫淺紅如展障
襲香薰德可同隣
浮生鬧擾渾歸幻
此日團圓卽任眞
醉倚林亭成小睡
暫時身世武陵人

우연히 산길 찾아 가는 봄을 즐기노니
골짜기의 풍경이 이곳만은 특히나 새롭네.
자줏빛 붉은 빛 꽃은 병풍 펼쳐 놓은 듯
향기와 덕이 퍼지니 이웃으로 삼을 만 하네.
요란한 뜬 인생 온통 꿈만 같노니
그날 이 모임 그림은 참 모습 그대로여라.
술 취에 숲 정자에 기대어 잠시 잠을 자니
한 순간 이내 몸이 무릉 사람이 된 듯.

민형남의 두 번째 작품이다. 청풍계의 승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작품을 시작했다. 5,6구에서는 속세의 삶이 모두 꿈같다고 하면서, 청풍계의 모임을 그린 그림을 보고 흥취에 젖어들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그림이 먼저 그려졌고 그 그림을 보고 그날의 감회가 일어 작품을 지었음이 재차 확인되다. 마지막 구절은 설핏 취해 잠이 드니, 마치 자신이 무릉도원의 사람인 듯하다는 표현이다. ‘무릉인’은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

29) 李慶全 “此是長安第一處，喧闐擗轍幾多尋。丹青爛熳園林匠，閨闈玲瓏洞壑深。坐密不辭歌扇狎，令嚴那道酒籌侵。陶陶薄暮歸來興，花露沾衣月掛岑。”

30) 崔喜男 “西溪物色屬芳辰，好事群公爲賞春。酒盡小亭山日暮，插花歸去月隨人。”

에 나오는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으로, 풍진세상에서 벗어난 탈속의 경지를 의미한다.

이경전의 두 번째 작품에서도 청풍계 모임의 흥취를 얘기하다가, 무릉도원에는 다시 가기 어렵지만 무릉도원의 풍경을 그림 속에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³¹⁾ 청풍계 모임을 그린 그림을 보고서 복사꽃 만연한 무릉도원으로 치환시켰는데, 이 역시 청풍계를 탈속의 공간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또한 이경전은 7언고시에서 하늘이 잠시 새장을 벗어나서 벗들과 원림에서 맘껏 놀게 했다고 했으며,³²⁾ 김신국도 고관들이 모두 세상 근심 떨쳐버렸다고 한 바 있다.³³⁾ 모두 유상처에서 탈속의 흥취를 만끽한 것이다. 이러한 탈속의 흥취는 신선세계의 인식으로까지 연결되었다.

別有仙區咫尺間
何須遠舉出塵寰
洞深池閣經過少
春晚園花次第斑
四座風流名宰相
一尊登眺好溪山
清遊却怕成陳迹
輸入圖詩替後顏

선경이 매우 가까운 별처에 있노니
어찌 멀리까지 가서 속세를 벗어나랴.
깊은 골짜기 연못가 누각 지나는 이 적고
늦봄 정원의 꽃은 차례차례 아롱지네.
사방 자리에는 풍류 넘치는 명재상이요
술 한 동이 가지고 좋은 산수를 구경하네.
청아한 놀이 목은 자취 될까 두려워서
그림과 시로 옮겨 훗날 얼굴 대신하네.

이덕형의 첫 번째 작품이다. 1,2구에서는 청풍계를 속세를 벗어난 신선세계에 견주었다. 이어 청풍계의 풍경을 묘사했고 동행했던 이들과의 놀이도 간략히 소개했다. 김신국이 서문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림과 시로 옮겨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작품을 마무리했다. 흥취를 구가했던 유상처를 속세를 벗어난 신선의 세계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31) 李慶全 “諸公闕下簪初蓋，拂袖香烟共慙鞍。首事勝遊誰立幟，擔當豪辦屬連環。天機袞袞元無盡，世故忽忽自不閑。只是武陵難再到，桃花流水畫中看。”

32) 李慶全 “……果然作者爲七人，天借暫便超樊籠。園林時節與吾友，三合不娛胡忡忡……”

33) 金薰國 “暇日尋春樂太平，銀鞍金勒集群英。飛花撲馬如相引，怪鳥親人莫湧警。珪組都忘塵世累，林泉但覺好懷生。歸途不怕黃昏近，山逕紛紛月色明。”

청풍계를 신선세계로까지 확장시킨 언급은 각 작품에 산견된다. 이상의 도 자신의 두 번째 작품에서, 청풍계에서의 멋진 노닐을 회억하며 인간 세상에도 청풍계와 같은 신선세계가 있으니 거울 속의 백발을 슬퍼할 필요 없다고 한 바 있다.³⁴⁾ 또한 이덕형도 청풍계를 신선의 거처로 받아들였고³⁵⁾ 이경전도 자신의 7언고시에서 청풍계의 노닐을 신선세계인 영주산과 봉래산의 유람으로 표현했다.³⁶⁾

이처럼 청풍계는 유상처로, 흥취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실제 남다른 풍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바로 태평성대가 자리하고 있다. 김신국의 첫 번째 작품은 태평성대로 작품을 시작하여 흥취로 갈무리하여, 태평성대로 인한 흥취임을 시사했다.³⁷⁾ 이필영도 자신의 두 번째 작품에서, 해가 저도 돌아갈 줄 모른 채 청풍계에서 한가롭게 유상할 수 있는 것은 태평성대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했다.³⁸⁾ 청풍계를 유상처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태평성대가 깔려 있는 셈이다. 이러한 태평성대는 김신국의 서문에서도 보이듯이, 임금의 은혜로 연결된다.³⁹⁾ 유상처에서의 흥취 역시 태평성대, 임금의 은혜로 연결되는 조선조 문인들의 전형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은 유상처에서의 흥취가 대부분이다. 흥취가 만연한 곳에서 탈속의 경지를 읊는다거나 신선의 세계로 연결시켰는데, 사실 색다른 구조는 아니다. 또한 당대를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성군으로 인한 태평성대였다는 논의 역시 조선조 문인의 시문에서 산견되는 인식 구

34) 李尙毅 “落花流水洞門幽，三月名園作勝遊。鏡裏不須悲白髮，人間還自有丹丘。笑看前嶺雲容變，醉愛深杯露氣浮。好事如今猶在耳，隔溪織唱度瓊樓。”

35) 李德洞 “紫苑西偏步履初，一區幽絕似畝居。依巖架屋山當戶，踈澗穿池水繞除。景物花明兼柳擘，登臨開府與尙書。永和修禊難專笑，無際昌辰樂爲餘。”

36) 李慶全 “……明朝人事隨日出，一夢恍然遊瀛蓬……”

37) 金蓋國 “暇日尋春樂太平，銀鞍金勒集群英。飛花撲馬如相引，怪鳥親人莫湧警。珪組都忘塵世累，林泉但覺好懷生。歸途不怕黃昏近，山逕紛紛月色明。”

38) 李必榮 “何處尋春寫我憂，一區奇勝恣冥搜。輕嵐出谷水逾碧，嫩葉成陰山更幽。聖代卽今無闕事，吾曹終日樂行休。斜陽在嶺忘歸去，且折花枝作酒籌。”

39) 태평시절의 유람을 임금 은혜로 연결시킨 인식은 李慶全의 칠언고시 “還思飲啄本有數，況沐聖澤洪復洪。”이란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조이기 때문이다.

3.2. 개인적인 자부심의 발현

승경도 흥취를 발산하게 만들지만, 승경을 함께 했던 이들에 대한 자부심도 흥취를 구가하는 한 방편이 되기에, 작품 내에서 동행했던 이들에 대한 칭송이 엿보인다.

...(전략)...

清談仍酒轉豪放
一一坦坦披心裏
驪興壯元今貳公
聲望夙自儒冠隆
驪川清約等閑士
犀貂半生啖葵菘
漢南短小精悍姿
高節自許磨崆峒
阿咸國器早擅價
文采炤耀雲衢虹
吾宗擢秀迥無雙
圭璧燦爛欽盲聾
更兼牢落崔君子
顧我癡蠅都附驥
果然作者爲七人
天借暫便超樊籠
園林時節與吾友
三合不娛胡忡忡
相酬相勸不停斟
花蘂不盡飲無終

청담 나누며 술 마시니 호방한 기운 돌아
하나하나 진솔하게 속 얘기를 꺼내놓네.
여흥은 장원으로 지금 찬성 자리에 있고
어릴 적부터 그 명성이 유가에서 대단했네.
여천부원군 청렴하여 한사와 같노니
반평생 높은 벼슬에도 푸성귀 먹는다네.
한남은 작은 체구에 정밀하고 강하여
높은 절개 자부하며 우뚝한 기상 닦고 있네.
조카는 나라의 인재로 일찍부터 명성 날렸고
문채도 환히 빛나 하늘의 무지개 같다네.
우리 집안의 수재로 뛰어나 견줄 이 없었고
어진 덕성 찬란해 어리석은 이들 흠모했지.
또한 불우하게 살아가는 최군자는
나처럼 못한 사람의 뒤를 따르고자 했네.
과연 일곱 사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잠시 새장을 벗어나게 해 주었네.
원림의 좋은 시절에 내 벗들과 함께 하니
좋은 봄날 즐기지 않고 어찌 근심하리오.
서로 술 권하며 씬 없이 마시노니
산대는 수없이 쌓이고 술도 끝없이 마시네.⁴⁰⁾

40) 참고로 『청풍계첩』에 실린 李慶全의 칠언고시 진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韓平居士石樓翁，身世悠悠醒醉中。惟應莫逆亦有緣，追逐許與煩諸公。君恩抵老尚繫戀，環佩共朝明光宮。忻然握手殿門外，蓋簷小話披忽忽。流光袞袞足可惜，浩蕩煙花三月風。歸謀各有不時需，駕言蓋與吾儕同。街西咫尺步可到，絕境有溪名青楓。青楓舊基

...(후략)...

이경전이 쓴 7언고시의 일부분이다. 청풍계에 앉아 진솔한 담소를 나누었다고 하면서, 이상의, 민형남, 이필영, 이덕형, 김신국, 최희남을 차례대로 열거했다. 자신을 제외한 6명에 대해 각기 2구씩을 할애하여 그들의 재능이나 명망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다. 이어 그들과 청풍계에서 맘껏 노닐었다는 언급이 나온다. 동행했던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칭송과 자신이 그들과 어울렸다는 언급은 결국 동행한 이들에 대한 칭송이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자신의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러한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자부심의 표출은 아집과 관련된 고사의 활용을 통해서도 발견되었다.

紫苑西偏步履初
一區幽絕似仙居
依巖架屋山當戶
踈澗穿池水繞除

궁궐 서편으로 발길을 옮기노니
그윽한 한 지역 마치 신선의 거처인 듯.
바위 옆에 집 지으니 산은 대문이 되고
성긴 시내 못에 솟아 계단을 휘감아 도네.

誰是主，主人不在堂宇空。邇來遊賞屬閑人，樂事藉藉喧兒童。時哉唯話不可失，春服立替朝衣紅。聯翮騶御雜後先，歷盡闌衢山路通。臨風舉鞭叩其戶，戶外合抱欵梧桐。開巖一窺若畫圖，縹緲金碧何玲瓏。朱欄曲曲粉窓斜，碧桃千樹花濛濛。茅茨九頂復何所，太古長日和融融。青錢欲浮小池水，玉筍未抽踈篁叢。山花爭鬪不辨名，谷鳥相呼依密蒙。庭階面面巧宛轉，崖磴轟轟緣高崇。因崖一尋出屋簷，眺望直窮峨嵋東。中書小吏亦解事，魚貫不待銀鞍驄。芳菲紅綠襲步武，楚臺春興添無窮。攀休行憩各任意，或勇迅涉如貪功。幽谿穹窈餘房闔，亂石縱橫蹲虎熊。蒼屏削玉劈連環，白甲盤根低鞠躬。亦有花地辦數頃，寬閑似快靚青穹。乃知空洞足容物，表裏澗谷遊人充。遊人聞響不見人，同樂恨不同磨礪。盤桓嘯咏不知疲，但恐落日嚙西嵩。披衣還下復相携，縱橫莫如依窓櫺。蒲團略設宜促膝，肴核不儉而不豐。呈盤何物自上林，交梨靈液醫喉嚨。清談仍舊轉豪放，一一坦坦披心裏。驪興壯元今貳公，聲望夙自儒冠隆。驪川清約等閑士，犀貂半生啖葵菘。漢南短小精悍姿，高節自許磨崆峒。阿咸國器早擅價，文采炤耀雲衢虹。吾宗擢秀迥無雙，圭壁燦爛欽盲聾。更兼牢落崔君子，顧我癡蠅都附驥。果然作者爲七人，天借暫便超樊籠。園林時節與吾友，三合不娛胡忡忡。相酬相勸不停斟，花蘂不盡飲無終。衰顏帶潮各呈暈，老耳透熱疑疑聽。織歌爭歎邁玉簫，蚌匣豈不賢郢筒。厭厭畢逋到黃昏，渾忘慙駕咻僕僮。還思飲啄本有數，況沐聖澤洪復洪。明朝人事隨日出，一夢恍然遊瀛蓬。不將文字記佳處，往迹倏忽同泥鴻。丹青無恙矢永傳，尺軸溪藤憑角弓。江山水月變不變，蘇仙萬古眞英雄。年年有興輒携酒，勳業不獨看青銅。”

景物花明兼柳躡
登臨開府與尙書
永和修禊難專笑
無際昌辰樂爲餘

꽃은 활짝 피었고 버들은 늘어져 있노니
올라가 개부 및 상서와 함께 하네.
왕희지의 난정 모임만 좋다고 하기 어렵나니
끝없이 좋은 시절 즐거움도 넉넉해라.

이덕형의 두 번째 작품이다. 청풍계를 신선의 거처로 인식하며 이곳의 승경과 유람을 기록했다. 작품의 말미에서는 자신들의 이 모임을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 모임에 비견했다. ‘영화수계’는 왕희지의 〈난정집서(蘭亭集序)〉에 나오는 표현이다. 자신들의 모임을 왕희지의 난정 모임에 견주어 자부심을 발현한 것인데, 민형남도 자신의 첫 번째 작품에서 청풍계의 유상을 읊다가, 왕희지의 난정 모임에 자신들을 비견했고 청풍계의 그림이 마치 난정 모임을 그림으로 옮겨놓은 듯 하다고 자부심을 표출한 바 있다.⁴¹⁾

龍眠寫出舊遊辰
荏苒年光又一春
萬壑千巖渾似夢
如今朦朧屬何人

용면이 옛 놀던 모습을 그려 놓은 듯
어느덧 세월이 흘러 또 봄날이 되었구나.
수많은 계곡과 바위가 모두 다 꿈인 듯하니
지금은 성대한 그 일을 누가 즐기고 있다.

최희남의 세 번째 작품이다. 1구의 ‘용면’은 송대(宋代)의 저명한 화가 이공린(李公麟)의 별호이다. 북송(北宋)의 문사(文士) 소식(蘇軾), 황정견(黃庭堅), 진관(秦觀) 등이 항상 서원(西園)에서 가회(佳會)를 자주 열었는데, 이공린이 그들을 사모하여 「서원아집도(西園雅集圖)」로 그린 바 있다. 결국 1구의 이공린이 옛 놀던 모습을 그려 놓은 듯하다는 것은 『청풍계첩』에 실린 청풍도에 대한 칭송이면서 자신들의 모임을 북송 문인들의 아집에 견주어 자부심을 발현한 셈이다. 2구는 또 한 해가 흘러 봄이 되었다는 것인데, 1620년 늦봄에 청풍계에서 모임을 갖은 후, 1년이 지났다는

41) 閔馨男 “紫宸朝罷共尋春，步步名園賞更新。花草芳馨俱異品，溪山秀麗絕無隣。青娥密席纖歌艷，白首深盃晚興眞。醉筆蘭亭渾漫事，爭如身作畫中人。”

말로 실제 그림과 시작품이 1621년 봄에야 완성되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이경전도 7언고시에서 소식을 만고의 영웅이라고 칭송했는데, 그 이면에는 소식의 아집에 자신들의 모임을 견준 자부심이 묻어난다.⁴²⁾

승경에서의 흥취를 표현하면서, 청풍계를 탈속의 공간으로 묘사했고 더 나아가 신선세계로까지 연결시켰다. 물론 그 이면에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당대 임금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흥취의 구사에는 집단적 혹은 개인적인 자부심도 기저에 깔려있다. 동행했던 이들에 대한 칭송은 결국 자신의 자부심을 우회적으로 발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왕희지의 난정 모임이나 소식의 서원 아집에 자신들의 모임을 견준 것도 자부심을 드러내는 한 방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조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시회나 아집의 작품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기에,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만의 특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성호기념관에 소장된 『청풍계첩』에 대해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우선 청풍계와 관련해서는 문인들의 시문이 산발적으로 목격된다. 그러나 『청풍계첩』처럼 하나의 시화첩으로 엮인 경우는 없다. 청풍계 공간의 의미나 그 곳을 배경으로 진행된 시회를 언급함에 있어, 결코 빠트리서는 안 되는 자료가 바로 『청풍계첩』이다.

이익의 할아버지였던 이상익은 1620년 봄에 김신국, 민형남, 이덕형, 최희남, 이경전, 이필영 등과 청풍계에서 봄놀이를 했고, 1년이 지난 1621년 입춘에 민형남과 이필영이 빠진 상태에서 재차 모임을 열었다. 아마 이때쯤 김신국의 제안으로, 1620년의 모임을 그림으로 그리고 시작

42) 李慶全 “……江山水月變不變，蘇仙萬古眞英雄……”

품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익은 1735년 집안에 전해져 오던 청풍계 관련 그림과 시문을 첩으로 엮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호기념관에 소장된 『청풍계첩』이다. 이익의 집에 전해져 왔던 청풍 모임의 기록은 1620년 실제 청풍계의 모임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뒤에 지은 것으로 판단된다.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한 것이 1년이 지난 뒤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또한 청풍계의 전경을 그린 그림도 1735년 이익이 성첩하는 과정에서 임모(臨模)한 것이었다.

『청풍계첩』에는 이상의가 친필로 쓴 ‘靑楓賞春’이란 글씨와 청풍도의 전경을 그린 그림이 담겨 있다. 이어 김신국의 서문이 있고 참여했던 7인의 시작품 17수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7인이 각기 7언율시 2수의 작품을 지었다 하면서 총 14수가 수록되어 있다고 보고했는데, 실제 『청풍계첩』에는 7언절구 4수, 7언율시 12수, 7언고시 1수, 총 17수가 수록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작품 분석에 있어 편의상 유상처에서의 흥취, 탈속 및 신선 세계의 이미지, 모임에 대한 자부심의 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지만, 사실 각각의 작품 속에 이러한 인식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청풍계첩』에 실린 시작품은 기존 청풍계에 대한 인식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흥취를 맘껏 누릴 수 있는 유상처에서 세상사를 벗어날 수 있는 탈속 및 신선의 공간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청풍계첩』에 실린 작품만의 특징을 살피는데는 한계가 있어, 전체 작품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물론 김상용이 순절하거나 김상현의 정절이 드러나기 이전이기에 『청풍계첩』의 작품에 충절의 이미지는 없었다.

청풍계를 논의하는데 있는 『청풍계첩』은 빠트려서는 안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간단한 언급에 그쳤기에, 청풍계에 대한 연구나 『청풍계첩』의 논의에 일조하기 위해 진행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실제 작품은 시회나 아집에 대한 조선조 문인들의 전형적인 인식만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본 논문의 한계임을 밝힌다. 청풍계첩의 7인

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나 지향했던 학문적 분위기 및 문인들 간의 교유에 대해 좀 더 접근하고 동시대나 이후 문인들의 평가까지 반영된다면 『청풍계첩』의 사회적 혹은 문화사적 위상이 확연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靑楓禊帖』, 성호기념관 소장본.
- 金尙容, 『仙源遺稿』, 한국문집총간 65집.
- 朴 淳, 『思菴集』, 한국문집총간, 38집.
- 劉希慶, 『村隱集』, 한국문집총간, 55집.
- 李尙毅, 『少陵集』, 한국문집총간, 12권.
- 李 珥, 『栗谷全書』, 한국문집총간, 45집.
- 李 瀾, 『星湖全集』, 한국문집총간, 199집.
- 李好閔, 『五峯集』, 한국문집총간, 59집.
- 鄭惟一, 『文峰集』, 한국문집총간, 42집.
- 송희경, 『조선후기 아회도』, 다홀미디어, 2008.
- 안산시, 『星湖紀念館』, 2004.
- 강혜선, 「인왕산 청풍계의 문학적 전통」, 『한문학보』25권, 우리한문학회, 2011.
- 윤진영, 「17세기 청풍계 그림, 〈청풍계도〉」, 『문헌과해석』12, 태학사, 2000.
- 이진향/이재근, 「淸風溪 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29권,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 이종목, 「17세기의 문화 공간 靑楓溪」, 『문헌과해석』12, 태학사, 2000.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Abstract>

A Survey of 『Cheongpunggyecheop』in the Possession of Memorial for Seongho

Park, Chong-hoon

A review of study on the Cheongpunggye or in relation to Cheongpunggye was report sparingly. But, It wasn't full-scale discussion about 『Cheongpunggyecheop』 that record a meeting of Cheongpunggye by a picture and poetry. So, This study was considered that the course of made 『Cheongpunggyecheop』and works that compile a album by drew picture and wrote poem showed meeting of Cheongpunggye at 1620year.

At 1620, Kim-Sangyong leaved Cheongpunggye and lived in Wonju, they who Kim- Shinguk, Lee-Sangeui, Min-hyeongnam, Lee-dukhyeong, Choi-heenam, Lee-kyungjeon, Lee-pilyoung went to Chengpunggye by purpose of enjoying spring. And the next year the first of spring, except Min-hyeongnam and Lee-pilyoung, they hold again the meeting. Kim-Shinguk proposed that delivered next generation that drew a picture and wrote a poem. And according to this propose, they respectively drew the landscape and wrote poem. It's been a year than they actuality drew picture and wrote poem at 1621year. But, It could confirm work in 『Cheongpunggyecheop』.

Lee-sangeui who took part in is Seongho Lee-ik's grandfather. but, Lee-ik organized family antiquity. Then He discovered poem and picture related Cheongpunggye meeting. So, It was compiled poem and picture album that called『Cheongpunggyecheop』. This was 『Cheongpunggyecheop』

in the Possession of Memorial for Seongho. In the process, Lee-ik spoke that moved drew panorama of cheongpungdao.

In this 『Cheongpunggyecheop』, It was included that Lee-sangeui personally wrote ‘Cheongpungsangcun’ and drew panorama of cheongpunggye, Cho-shinguk wrote preface and 7people wrote 17 poems. In the end of each poet’s work, It added that simple information about each poet.

At work of 『Cheongpunggyecheop』, It was mainly excitement that played in the spring. Such excitement was connected image of unworldliness. and it was expanded into immortal world. also, to express collective or personal self-respect pride, they complimented their talent that share the meeting within work.

This was use as an instrument to expose self-respect pride that compare their meeting to Wang-hsichin’s Nanjeong meeting or Su-shi Seowon meeting. Such tendency of work commonly seen at a poetry club or own book literary men of choseon Dynasity. so, this could not be considered feature of works in 『Cheongpunggyecheop』.

Key words : Cheongpunggyecheop, Cheongpunggye, Kim-Sangyong, Lee-ik
Kim-Shinguk, Lee-sangeui

투고일 : 2015년 7월 15일, 심사 : 7월 17일 ~ 8월 13일, 게재확정 : 8월 13일

